

식물 재생자원을 원료로 사용한 스웨이드 인조가죽 ‘Ultrasuede®PX’

TORAY社は 식물 재생자원을 원료로 사용한 스웨이드 인조가죽 Ultrasuede®PX를 2015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으며, 2016년 1월부터 판매를 개시한다.

Ultrasuede®는 45년의 역사를 가진 스웨이드 인조가죽이다. 우수한 질감 및 기능성으로 패션분야를 비롯하여 인테리어,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, 고급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.

새롭게 개발된 Ultrasuede®PX는 Ultrasuede®를 구성하는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인 에틸렌글리콜을 사탕수수 폐당밀(廢糖蜜, molasses)로 제조한 에틸렌글리콜로 대체한 것이다. 이 폴리에스터는 바이오 기반 합성폴리머의 함유율이 약 30 %이며, Ultrasuede®PX 전체로 볼 때는 약 10 % 이상이다. 이 바이오 기반 폴리에스터 섬유의 기본 물성은 기존 폴리에스터 섬유와 동등하기 때문에 Ultrasuede®PX는 기존 Ultrasuede®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질감, 통기성, 이지케어성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갖는다. 최근 라이프사이클을 통해서 제품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움직임이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TORAY社は 고기능·고감성과 지구환경 배려를 양립시킨 첨단소재로서 Ultrasuede®PX를 다양한 용도로 제안하고 있다.

♠ TORAY Homepage News (2015년 10월 20일)